

셀트리온, 독감 항체치료제 개발

글로벌 바이오신약 1호 예감 ... 동물실험서 다양한 바이러스 억제

이르면 2011년 중으로 국내 바이오기업이 개발한 독감 항체치료제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은 다양한 인플루엔자를 치료·예방할 수 있는 항체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곧 국내 임상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월9일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종합 독감 항체치료제(Super Flu-antibody Therapy)> 개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항체치료제는 인체의 면역반응에 작용하는 항체를 이용한 바이오의약품으로 항암제와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제 등 고가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반면 <타미플루>나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는 화학적 합성으로 생산된 의약품이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치료제는 동물실험 결과 여러 계절독감과 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독감 바이러스를 억제해 우수한 치료 및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대표이사는 “신종인플루엔자뿐 아니라 계절독감, 조류독감 등에 모두 효과를 나타내는 슈퍼항체를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독감 항체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크루셀이나 하버드대에 비해 더 빠르게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독감 항체치료제 개발은 셀트리온이 주도하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일본 도야마대학 연구소(SCW) 등 국내외 전문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연구진은 신종플루에 걸린 환자의 혈청에서 얻은 항체 가운데 여러 가지 독감바이러스를 공통적으로 억제하는 후보 항체를 찾아냈으며 세포주실험과 동물실험을 거쳐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우선 국내 임상시험을 시작한 후 해외 개발을 모색함으로써 이르면 2011년 초 임상시험을 마치는 대로 상업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항체치료제는 다양한 독감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 항바이러스제가 듣지 않는 환자나 중증 환자에게도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매년 8억명이 각종 독감에 걸리고, 약 800만명이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시장규모도 매년 수천억-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회당 수십만원이 넘는 고가여서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정진 대표는 “치료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내 최초로 글로벌 바이오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것이자 한국 바이오제약 산업이 세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격을 최대한 낮춰 보급형 독감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09>